서구문명이 할퀸 '지구 허파'의 역사

'아마존' 존 헤밍 지음

"아마존 토착 원주민들의 태곳적 확실성과 상대적 평온함, 그리고 고립은 1500년을 기점으로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 이상한 배들이 그 커다란 강의 어귀에 출현하더니 며칠 동안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1492년 에스파냐 탐사대 비센텐 야네스 핀손 일행이 처음으로 강 상류에 도착한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다. 아마존의 암울한 미래도, 그 순간 그렇게 예고되었다.

아마존은 '생명의 나무'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거대한 나무의 형상이다. 잔가지와 큰 가지가 만나 결절을 이루면서 몸통으로 흘러든다. 아마존 강 본류의 모습이다.

이 생명의 나무가 어떻게 파괴와 착취의 대상이 되었는가. 근세기 위대한 아마존 탐험가로 꼽히는 캐나다의 존 헤밍이 쓴 '아마존'은 그 참극의 역사를 조목조목 밝혀낸다. 책은 수차례의 원정, 다수의 부족과의 만남을 통해 얻어진 결실이다. '정복과 착취, 경외와 공존의 500년'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방대한 기록, 자료, 논문도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결합돼,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본격적인 아마존 탐험은 1560년 잉카제국을 멸망시킨 에스파냐 정복자들이다. 아마존 일대를 탐험한 우르스아-아기레 원정대는 10개월에 걸쳐 살인과 약탈, 처절한 사투 끝에 일주에 성공한다.

바야흐로 원주민들의 잔혹사가 시작된다. 향신료가 교역품으로 각광받던 시대였다. 유럽인들은 금 대신 계피나무를 찾아 정글로 들어왔고 원주민들은 이방인들의 총포에 맞서야 했다.

이후 선교사들이 앞다퉈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럽식 정주문화 안에 원주민을 가두었다. 원주민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포교였다. 그 결과 원주민들이 정복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주민이 숲속으로 끌려나와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선교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접근이 불러온 패착이었다.

아마존의 상업적 가치가 인정받게 된 때는 19세기 말이다. 고무가 산업 혁명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은 다시 제국의 쟁탈지로 전락한다. 고무나무가 자라는 곳마다 농장이 들어서고 신흥부호들이 생겨났다. 서구인들은 울창한 아마존을 보며 환상을 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마존 원주민들은 바깥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1982년 샤반테족 족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일부 부족은 문명세계와 접촉,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부족들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보다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

오늘날 많은 브라질 국민들도 원주민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숲 지킴이라는 데 동의한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답게 전 세계 동식물의 30%가 서식한다. 면적도 한국의 70배에 달한다. 강과 숲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은 인류가 지켜야 할 공공재산이다.

1988년 카야포족이라는 부족의 여성이 문명의 세계를 향해 일침을 가한다. 그녀는 거주지 인근에 들어서는 댐 건설에 절규했다.

"우리의 빈곤을 덜어주겠다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하다. 우리는 비참하지 않다. 우리는 인디오다." 〈미지북스·3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카이만악어는 한때 아마존의 호수와 개울에 우글거릴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가죽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삶이 힘겹다고 느낄 때 내면을 단련하라

'추사의 마지막 편지…' 설흔 지음

"사물의 올바른 위치를 기억하라"

조선 최고의 예술가 추사 김정희가 아들에게 주는 고언이다. 걱정과 불안으로 흔들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기억하라는 의미다.

'퇴계에게 공부법을 배우다'를 낸 바 있는 설흔이 신작 '추사의 마지막 편지, 나를 닮고 싶은 너에게'를 펴냈다. 작가는 실제 추사가 남긴 서신과 서화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보태 한 편의 팩션(faction)을 완성했다. 책에서 화자는 추사인 '나'로, 서얼인 아들은 '너'로 상정돼 있다. 아들은 소심하고 나약하다. 모함을 받아 제주도로 유배를 간 추사에게 유약한 아들은 늘 걱정거리다.

책에서 묘사되는 추사의 이미지는 냉정하고 단호하다. 자칫 가부장적 아버지의 전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추사의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추사는 "삶이 힘겹다고 느낄 때 스스로의 내면을 단련하라"고 말한다.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면 어떤 충언도 쓸모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밖에 누군가의 신뢰를 얻고 싶을 때 먼저 진심과 정성을 표현하라고 요구한다. 타인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이편의 진심을 정확히 전달하라는 뜻이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삶이 버거운가. 한번쯤 추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개발' 정치적 프로젝트 파헤쳐

'거대한 역설' 필립 맥마이클 지음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개발(development)'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정치적 프로젝트를 파헤친 책이 나왔다.

미국 코넬대 교수이자 국제 개발 분야 석학인 필립 맥마이클이 쓴 '거대한 역설'은 식민화와 산업화 시대부터 시작됐던 개발의 역사를 추적한다. 책은 개발이 통치를 위해 기획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근대적 발전의 표준이 된 미국, 세계의 공장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자원 민족주의를 선도하는 베네수엘라, 전후 개발 프로젝트의 상징이 된 한국에 이르기까지 책에는 개발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하다. 저자는 사회·지리적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경제만능주의적 개발의 문제점을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지금 세계는 지구화 프로젝트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다. 빈익빈부익부, 금융 불안, 비정규직 문제는 테러리즘이나 생태적 안전 문제로 전이되는 상황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개발을 전 지구적 불평등과 연계해 성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개발 담론에서 관행적으로 무시되는 가치(가정과 공동체의 재생산 활동에서부터 생태계 균형에 이르는)가 실은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더 회복 능력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양인·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갈 곳 없는 아이들에 손을 내민다

'조용한 식탁' 이병승 지음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자살한 청소년이 373명이다. 하루 1명 꼴로 하나의 목숨이 스러진다. 드러난 통계를 제외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리라는 추측이 된다.

소설집 '조용한 식탁'은 상처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이병승 외 6명의 작가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

표제작 '조용한 식탁'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나'의 이야기다. 가정은 그리 평탄치 않다. 노조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아버지는 서류상 이혼을 한다. '나'는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다.

책에는 벼랑끝에 몰린 아이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사회 탓인가? 다른 원인이 결합된 총체적인 문제인가? 추천사를 쓴 도종환 시인은 "너와 조금 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말로 의미를 부여한다. 〈삶창·1만1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이들의 마음속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아이에게…' 손석한 지음

좋은 부모의 제1 조건은 무엇일까?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서포터일까. 좋은 부모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지금 내 아이에게 해야 할 80가지 질문'은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15년째 진료해 온 손석한 박사가 연령별 심리 발달 키워드를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좋은 부모의 역할로 아이의 성장에 맞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함께 나눠주는 것을 꼽는다.

'응가 하니까 기분 좋아?'(4세 미만), '뭐가 제일 어려워?'(4~7세), '걱정되는 것 있어?'(8~10세),'어떤 타입의 이성친구가 좋아?'(11~13세) 등 손 박사가 직접 아이 연령별로 부모가 꼭 해줘야 할 필수적인 질문들을 꼽고, 질문에 따른 아이의 답변별로 Good과 Bad로 나눠 응답법을 제시해 준다.

〈수작걸다·1만4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천재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내밀한 사생활

'괜찮은 작가들' 허싼포 지음

"도시든 시골이든 어느 곳에서도 작가는 고독하다. 언제 어디서나, 작가는 고독하다."

'연인'의 작가 마그리트 뒤라스의 말이다. 그녀는 평생 술을 가까이 했던 작가다. 지난 1996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애주가뿐 아니라 전 세계 작가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삶과 그들을 인터뷰한 책이 나왔다. 시집 '목각하는 사람, 루쉰'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허싼포가 엮은 '괜찮은 작가들' 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내밀한 사생활들이 담겨 있다.

이책은 시그마북스가 기획한 6권의 '예술가의 노트' 시리즈 가운데 5권째로 '작가의 노트'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귄터 그라스, 밀란 쿤데라,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 모두 14명 작가들은 탁월한 재능과 감동적인 작품으로 인류에게 위대한 정신적 자산을 남겼다.

"그들의 어떤 힘이 우리에게 평범한 삶을 초월해 새로운 경지를 볼 수 있는 혜안을 선사하는 것일까?"

작가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사로잡힌 자신처럼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 비밀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

'예술가의 노트' 시리즈는 '내 그림을 위한 변명' (옮긴이 차혜정), '영화 꿈의 놀이터' (옮긴이 오수현), '예술 평범을 거부하다' (옮긴이 홍민경), '음표로 글을 쓰다' (옮긴이 이혜정), '글 속에 살아 숨 쉬다' (옮긴이 심지연) 등이다. 〈시그마북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몸젠의 로마사=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던 고전문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테오도르 몸젠이 쓴 '로마사'의 첫번째 완역본이 나왔다. '몸젠의 로마사 제1권-로마 왕정의 철폐까지'는 몸젠이 쓴 로마사 제1권(제1,2,3책), 제2권(제4책), 제3권(제5책) 가운데 고대 이탈리아의 시작부터 로마 왕정의 철폐까지를 다룬 제1권의 1책이다. 〈푸른역사·2만원〉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하나의 산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 없다'는 속담을 확인시켜주는 인접한 나라 중국과 일본. 영토를 둘러싼 이 두 강대국이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이유들이 추출된다. 저자는 두 나라가 바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역설하면서 가능하다면 서로 이해하면서 그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코리브르·3만5000원〉

▲너무 아름다운 꿈=2008년 '현대문학'에 단편소설 '울고 간다'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최은미가 그동안 현대문학과 문학동네 등에 수록된 단편 8편을 모았다. 꽃샘추위의 찬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봄기운을 감지한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갑작스레 다가온다. '너무 아름다운 꿈'은 그래서 살아볼 만하고, 그래서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하다. 〈문학동네·1만2000원〉

▲느낌 氏가 오고 있다=2010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에 당선되며 등단한 황혜경의 첫 시집이다. 총 Ⅲ부로 이뤄진 시집 Ⅰ부는 '나'와 나의 말로 파고드는 필사적인 노력과 고행에 가까운 고독의 기록이다. "나(너)는 너(나)의 제2피부"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Ⅱ부는 나와 너의 관계를 다룬다. 부끄럽고 후회되는 기억을 되짚으며 절망에서 시작한 시는 Ⅲ부에 이르러 좀 더 아름다울 다음을 노래한다.

〈문학과지성·8000원〉

▲세계의 박물관 미술관 예술기행-유럽편=유럽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체계적이고 신선하게 담아 작품과 관련된 역사, 숨겨진 이야기, 예술의 정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럽편은 문화재와 미술에 모든 열정을 바친 현직 승무원인 작가의 글에서 시작된다. 대한항공 선임사무장인 저자 차문성은 기내에서 문화예술 가이드 및 강사 경험을 살려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더해준다. 〈성안당·1만8000원〉

▲행복에 이르는 일곱고개=원로 언론인 홍사중이 여러 지면에 실었던 글과 새로 쓴 글을 보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책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명언, 가훈, 처세훈 등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처세훈의 고전으로 꼽히는 '채근담'과 '신음어'를 비롯해 동서양의 여러 명언들을 풍부하게 인용해 저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통찰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다미디어·1만4000원〉

어린이 책꽂이

▲독후감 쓰기 우리 고전=독후감 쓰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을 위해 '양난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후감 쓰기 우리 고전 시리즈' 10권이 기획됐다. 엄선한 작품들은 모두 초등학교 개정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 단순한 감상에서 벗어나 조금 더 심도있는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권당 9500원〉

▲칼날 눈썹 박제가='어떻게 하면 조선의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칼날 눈썹 휘날리며 고뇌하고 도전한 실학자 박제가 선생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펴냈다. '북학의' 지은이 박제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써냈다. 캐릭터의 특징이 잘 살아난 그림 역시 책을 보는 즐거움을 높여준다.

〈해그림·9000원〉

▲엄마 꿈속에서=불 꺼진 방 안. 잠이 안 온다는 지수를 재우려 애쓰지만 지수의 눈은 여전히 말똥말똥하다. 엄마가 먼저 잠들자 지수는 '꿈속에서 엄마는 무얼 하고 있을까' '나는 무얼 할까' 머릿속에 그려본다. 내일이면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밤 늦도록 잠들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읽어주면 좋을 책이다.

〈문학동네·1만2000원〉

▲재판을 신청합니다=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흥미진진한 재판 법정 동화다. 현상이는 전학 온 학교에서 급식 때 미트볼을 두 개 더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고 미트볼을 먹지 못한 장진의 도우미가 된다. 언제든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반의 규칙과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에 수상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공주니어·9000원〉

▲집으로 가는 길="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 함께 할 친구가 필요해…" 이야기 속에서는 주인공 소녀의 수호천사로 사자가 등장한다. 사자는 소녀가 집으로 가는 길에 처하게 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준다. 사자는 말이 없이 그저 풍성한 갈기를 뽐내며 함께 할 뿐이다. 세상을 마주하는 용기를 주고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다. 〈노란상상·1만원〉